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조현숙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세 가지 은혜 (시편 139: 1-7) 오상진목사
결단찬양 "십자가 그 사랑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오상진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어려움 속에서의 여유” (창세기 40:1-8)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은 단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섬김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아닌 그 속에서 감당해야 할 섬김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여 주는 두 번째 보여준 태도는 자신도 어려운 환경인데도 남의 어려움을 살펴 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지금 섬기고 수종을 드는 두 관장은 요셉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살펴 볼 줄 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받고 기도함 가운데 받은 그 위로하심을 통해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문제의 해답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시종장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에 요셉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면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문제에 눌러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 있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소식

-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한국방문** - 이진수 목사님 가정은 6월 17일까지 한국 방문하고 계십니다.
- 3. **강사 목사님** - 오늘 예배 설교 말씀은 행복한 교회 오상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6월 12일 주일 설교 말씀은 이동학 목사님 (샌프란 소망장로 교회 은퇴)께서 전해 주십니다.
- 4. **새벽예배** - 주중 새벽예배는 정병철, 유명민 집사님께서 한주간씩 인도하십니다.
- 5. **야외 예배** - 6월 26일 주일예배는 야외 예배로 (11AM) 모입니다
장소: Weekes Park / 27182 Patrick Ave, Hayward 94544

행사 및 모임

6월	야외예배	6월 26일(주일)
7월	새가족환영회	날짜미정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6/05	6/12	6/19	6/26
대표기도	조현숙	유명민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이삼희			여진화
봉사당번	나눔목장	살롬목장	따스한목장	동트는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055.00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등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행복과 축복의 통로인 칭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합니다. 인간의 본성도 선이 아닌 악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듣는 소식과 말들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칭찬보다 악담, 악플이 더 많습니다.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과 소식보다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전하는 것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과 평판을 떨어트리는 소문이나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SNS 이라는 소셜 미디어라는 온라인 공간속에서 익명으로 끊임없이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라고 하는 욕과 헐담, 저주의 언어 공격으로 유명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뭐 그런 욕이나 악플로 자살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보면 누군가 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분노, 낙심과 자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 수없이 많은 그런 악플을 날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칭찬과 격려하는 말은 행복과 기쁨을 마음에 채워줍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칭찬 한마디나 문자 하나에 “살 맛나다. 세상이 아름답다.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할 때를 경험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카톡에, 생각지 못한 “목사님, 요즘 성령충만해 보여서 좋습니다” 라는 문자 하나에 웬지 힘이 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다해 사역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작은 칭찬에서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칭찬은 나쁜 정보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좋은 점에 주목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칭찬은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네가 잘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칭찬은 상대를 살리고, 세우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과 행복으로 하나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칭찬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칭찬을 받고 살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작은 일에도 격려와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지낼 때 묵은 감정의 골과 상처가 치료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칭찬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 시 <i>1:00 P.M.</i>	유년부실 <i>Youth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목장모임 <i>House Church Meeting</i>	매 주 <i>Weekly</i>	목장별 각가정 <i>House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dison & Danielle</i>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